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17개 기관과 뜻 모아

종합지원체계 구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주시·민·관·공·학 지역협의체 업무협약식 가져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경제·소상공인 협회, 대학, 은행 등 17개 기관과 손을 잡았다.

시는 30일 사회혁신전주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민·관·공·학 지역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심상동 전주세무서장, 윤방섭 전주상공회 의소 회장 등 18개 기관 대표가 참석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와 참여기관들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경영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참여기관들은 전주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향후 △소상공인 및 소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으로 해소 및 경영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특화 정책연구개발 및 지역 상권 분석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참여 공공기관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전주시는 30일 사회혁신전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민·관·공·학 지역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다양한 정책 실행에 앞장서고, 민간단체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참여 은행들은 특별대출연을 통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대학들은 각각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활용해 청년창업 및 경영 컨설팅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

해 전주시 민·관·공·학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각 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이 조속히 활기를 되찾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협의체는 △전주시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세무서 △전주상공회의소 △광주지방고용노

동청 전주지청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은행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덕진구지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김옥기 기자

미국 뉴욕서 전주 야간관광 홍보 나서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코리아 소사이어티 관계자 면담 추진



전주시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미국 개별자유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뉴욕 소재 인비운드여행사와 관련기관 관계자를 면담하고, 전주의 야간관광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가 미국 뉴욕에서 낮과 다른 전주의 매력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미국 개별자유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뉴욕 소재 인비운드여행사와 관련기관 관계자를 면담하고, 전주의 야간관광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JFK트래블센터 등 뉴욕에 위치한 인비운드여행사를 대상으로 전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소개하고,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상품개발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가운데 JFK트래블센터는 뉴욕 관광객을 한국으로 송출하는 규모 있는 인비운드여행사로, JFK공항에 사무실이 입점해 있고 뉴욕 시내와 JFK공항을 연결하는 리무진 버스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야간관광 특

화도시 사업 중 해외 홍보 마케팅 예산을 활용해 전주를 1박 이상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리무진 무료 이용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빌惆을 팔았다.

또한 시는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한·미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을 방문, 전주 야간관광에 대한 홍보와 협력 방안,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되는 야간콘텐츠 대표사업인 'Club The 8'의 경우 공장지대인 팔복예술공장에서 소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MZ세대를 위한 'DJ트레토 나이트 파티'와 '문화예술공연'으로 구성도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지가 대상 토지는 지난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02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와 우편 또는 일시면회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가격이 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원주군 삼례읍의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완주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방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원주군 삼례읍의 외국인 계절근로로 현장을 방문했다.

방, 김병열 예방을 위한 손 씻기(류박스)체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주의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법무부와 함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유희태 원주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외국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간 원활한 인력 송출을 위해 계절근로자 MOU 협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농업 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진포건강미
(군산농협)



미성청결미
(서군산농협)



못잊어신동진
(옥구농협)



옥이슬
(옥구농협)



아리올
(동군산농협)



큰들의꿈
(대야농협)



옥토진미
(회현농협)



군산짬뽕 라면
(군산원예농협)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최승웅 지부장



군농업협동조합
박형기 조합장



서군농업협동조합
김기수 조합장



옥구농업협동조합
전봉구 조합장



옥산농업협동조합
박규석 조합장



동군농업협동조합
박영근 조합장



대야농업협동조합
한전수 조합장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
고계곤 조합장

함께하는
100년 농협

100년 농협